



“영미~ 금메달 가즈아” 컬링 김은정 ‘국제스타’



■ 김영미와 친구들

김영미

김경애
(김영미 동생)

김선영
(김영미 동생 친구)

김은정
(김영미 친구)

女컬링 ‘러시아’ 11-2 제압 7승1패 예선 1위 세계 1~5위 잇따라 격파 ‘돌풍’...내일 준결승 ‘영미와 친구들’ 컬링 입문 사연 등 화제 만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바람이 거세다.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한 실력과 독특한 튀는 개성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21일 오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8차전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팀을 11-2로 제압하며 7승 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 승리로 이날 오후 덴마크와의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예선 1위 자리를 확정했다.

예선 첫 경기부터 ‘세계 최강’ 캐나다를 꺾으며 시작된 대표팀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예선 2차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일본에 아쉽게 승리를 내주는 했지만 이후 연승을 달리며 예선 1위 자리를 찍었다.

그리고 지난 20일 예선 7번째 경기였던 미국전에서 9-6 승리를 추가하면서, 10개 출전국 중 가장 먼저 4강에 안착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데뷔한 한국 컬링의 사상 첫 준결승 진출이기도 하다.

강호들을 잇달아 제압한 실력도 실력이지만, 독특한 튀는 개성과 남다른 사연 덕분에 스킵 김은정, 리드 김영미, 세컨드 김선영, 서드 김경애, 후보 김초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의 ‘대세’가 됐다.

한 팀이 된 사연부터 특별하다. 중심에는 김영미가 있다. ‘영미’는 이번 대회 가장 유명한 이름이다.

무표정으로 스톤을 던지면서 스타덤에 오른 김은정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바로 ‘영미’다. 스톤을 던진 뒤 스위핑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느라 리드 김영미를 뒀다. 영미를 애타게 찾는 김은정은 ‘영미 친구’다. 그리고 김경애는 ‘영미 동생’, 김선영은 ‘영미 동생 친구’다.

방과 후 과목으로 컬링을 시작하게 된 김영미를 따라서 친구 김은정이 컬링부에 가입했고, 김경애는 친언니의 심부름을 갔다가 컬링을 시작했다. 그리고 김선영은 김경애가 교실 칠판에 써둔 ‘컬링부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팀 킵’에 합류했다.

이들의 성(姓)씨도 화제다.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선수들 모두 김씨라서 ‘팀 킵’으로 통한다. 감독(김민정)마저 김씨다. 덕분에 외신 기자들은 혼돈에 빠졌다.

영어 이름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영어 이름은 김은정 ‘애니’, 김영미 ‘팬 케이크’, 김선영 ‘씨니’, 김경애 ‘스테이크’, 김초희 ‘쵸쵸’다.

모두 김씨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먹던 음식을 가지고 지은 탓이다. 김영미와 김경애는 각각 팬 케이크와 스테이크를, 김선영은 반숙 후라이인 씨니 사이드업을 먹던 중이었다. 김은정은 요거트 상표에서 이름을 따왔고, 김초희의 초쵸 역시 먹고 있던 초콜릿 이름을 따왔다.

실력과 독특한 튀는 사연으로 평창을 들췄던 김은정은 23일 오후 8시 5분 결승 티켓을 놓고 ‘영미~’를 외친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대표팀 예선 결과

() 세계랭킹

예선 1차 (2월15일)	대한민국 (8) 8-6 패 캐나다 (1)
예선 2차 (2월15일)	대한민국 5-7 패 일본 (6)
예선 3차 (2월16일)	대한민국 7-5 패 스위스 (2)
예선 4차 (2월17일)	대한민국 7-4 패 영국 (4)
예선 5차 (2월18일)	대한민국 12-5 패 중국 (10)
예선 6차 (2월19일)	대한민국 7-6 패 스웨덴 (5)
예선 7차 (2월20일)	대한민국 9-6 패 미국 (7)
예선 8차 (2월21일)	대한민국 11-2 패 OAR*
예선 9차 (2월21일)	대한민국 vs 덴마크 (9)

*OAR: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男컬링 유종의 미

일본에 10-4 완승 4승5패로 예선 탈락

컬링장도 없던 시절 컬링에 빠진 소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서야 밝은 올림픽 무대에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끝냈다.

남자컬링 대표팀은 21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9차전에서 일본에 10-4 완승을 거뒀다.

이 경기는 대표팀의 올림픽 마지막 경기였다. 대표팀은 이미 예선 탈락을 확정된 상태였다.

첫째 목표로 설정했던 4강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대표팀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관중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스킵(주장) 김창민(33)과 김민찬(31), 성세현(28), 오은수(25), 이기복(23)이 모여 결성된 남자컬링 대표팀은 경북 의성컬링훈련원이 홈 그라운드다.

의성컬링훈련원은 2006년 한국 최초의 국제규격 4시트 컬링장이다. 김창민과 김민찬은 한국에 정식 컬링장이 생기기 전부터 컬링을 했다.

김민찬은 ‘컬링 개척자’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족과 컬링을 즐겼다. 김창민도 아버지가 김경두 전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인연으로 컬링을 접하고 컬링 선수가 됐다.

구미 출신인 성세현과 오은수는 고등학교 때 의성컬링훈련원에서 컬링 클럽 활동을 하면서 김창민, 김민찬과 알고 지냈다.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컬링 선수로 뛰던 이기복-이기정 쌍둥이 형제가 고등학교



21일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자컬링 예선 9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팀 선수와 감독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업 후 의성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에야 ‘완전체’로 뭉쳤다. 김창민과 김민찬의 입대 때문이었다. 김창민은 2016년, 김민찬은 2017년 군 복무를 마쳤다. 이들은 제대하자마자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했다.

태극마크 획득에 성공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세계 정상급 팀만 출전하는 월드컵 투어 그랜드 슬램 대회인 ‘부스트 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막상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초반

아이스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패배의 압박감은 실수로 이어졌다. 대회 시작과 함께 4연패에 빠진 대표팀은 “우리의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특히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관중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팀의 스위핑과 외침은 더욱 간절해졌다. 대표팀은 ‘컬링 종주국’ 영국을 이기면서 연패를 끊어냈다. 컬링 강국 스위스, 이탈리아도 제압했다. /연합뉴스

지분물건/문중산 특별우대!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오천·경매

담당 최선규.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고 제2018-1호

부동산매각입찰공고

1. 입찰물건 목록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 (요양병원)
- 대지 : 522.3㎡
- 건물 : 총8층 2,073.86㎡ 중 5층바다
공사중지 상태
최저 예정가격 : 금 앞십삼억일천이백오십만원
(₩1,312,500천원)

2. 입찰 일시 : 2018. 03. 05. (10 : 00 ~ 11 : 20)

3. 개찰 일시 : 2018. 03. 05. (11 : 30)

4. 기타사항
- 건축물 완공 시까지 건축설계, 건축감리, 건축안전
점검비 등의 비용은 낙찰인의 책임사항임.

참고사항 :
1) 시공사 및 하청업체 유치권포기각서 인증 완료.
2) 시공사 상대 공사대금
-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 57326 1심 승소
- 광주고등법원 2016나 16275 채무부존재확인
2심 (항소심) 승소
- 2017.09.27 확정 사건 종결.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문서 등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seoyang)에서 확인.

☎ 문의 010-7659-8900

제 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9일 (금) 16:00
2.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3. 보고서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30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견결정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2일

광양선박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63(중동)
대표이사 이 경 희 (직인생략)